

Highlights

- Antech 통합계약 및 북미 신규 공급계약으로 해외 동물진단 사업 안정화 전망
- 광동제약 연결 자회사 편입-씨티바이오 합병으로 지배구조 개편, 진단사업 시너지 기대감
- 美 SEKISUI와 RSV에 이어 COVID-19 진단제품 공급계약 체결

■ Antech 통합계약 및 북미 신규 공급계약으로 해외 동물진단 사업 안정화 전망

프리시전바이오는 이달 Antech Germany와의 통합 공급계약에 이어 북미 지역의 신규 파트너사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주요 동물진단 시장에 대한 사업 재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ntech USA와의 계약 중단으로 지속됐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동시에, 동물진단 시장에서 지역별로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Antech과의 북미 계약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후, 프리시전바이오는 지역별 파트너사를 새롭게 확보하기 위한 재편 작업에 즉시 착수, 6월 일본 NIPRO와의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까지 주요 글로벌 동물진단 시장 전반의 유통망을 다시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편이 단기적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당사는 재정비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장기 공급으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광동제약 연결 자회사 편입-씨티바이오 합병으로 지배구조 개편, 진단사업 시너지 기대감

프리시전바이오는 광동제약의 계열사인 씨티바이오와 합병을 결정, 양사의 진단사업 전 밸류체인을 통합함으로써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7월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합병을 통해 프리시전바이오가 씨티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면역진단 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프리시전바이오의 자체 제조시설과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씨티바이오의 연구개발 역량 및 신규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라인업 확대와 신규시장 진입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양사의 최대주주 광동제약은 이달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지분율을 54.73%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 및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책임경영 및 진단사업을 전략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美 SEKISUI와 RSV에 이어 COVID-19 진단제품 공급계약 체결

미국 자회사 나노디텍이 미국 SEKISUI와 COVID-19 신속항원진단 제품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나노디텍의 COVID-19 진단제품이 SEKISUI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기존 RSV 신속항원진단 제품과 더불어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노디텍의 COVID-19 진단키트는 '24년 1월 FDA 정식 승인을 획득한 제품으로, 이는 육안으로 진단 가능한 전문가용 신속진단 제품 중 최초 승인 사례입니다. SEKISUI는 앞서 3월 프리시전바이오와 RSV 신속항원진단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COVID-19 추가 계약으로 양사간 파트너십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프리시전바이오는 호흡기 진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